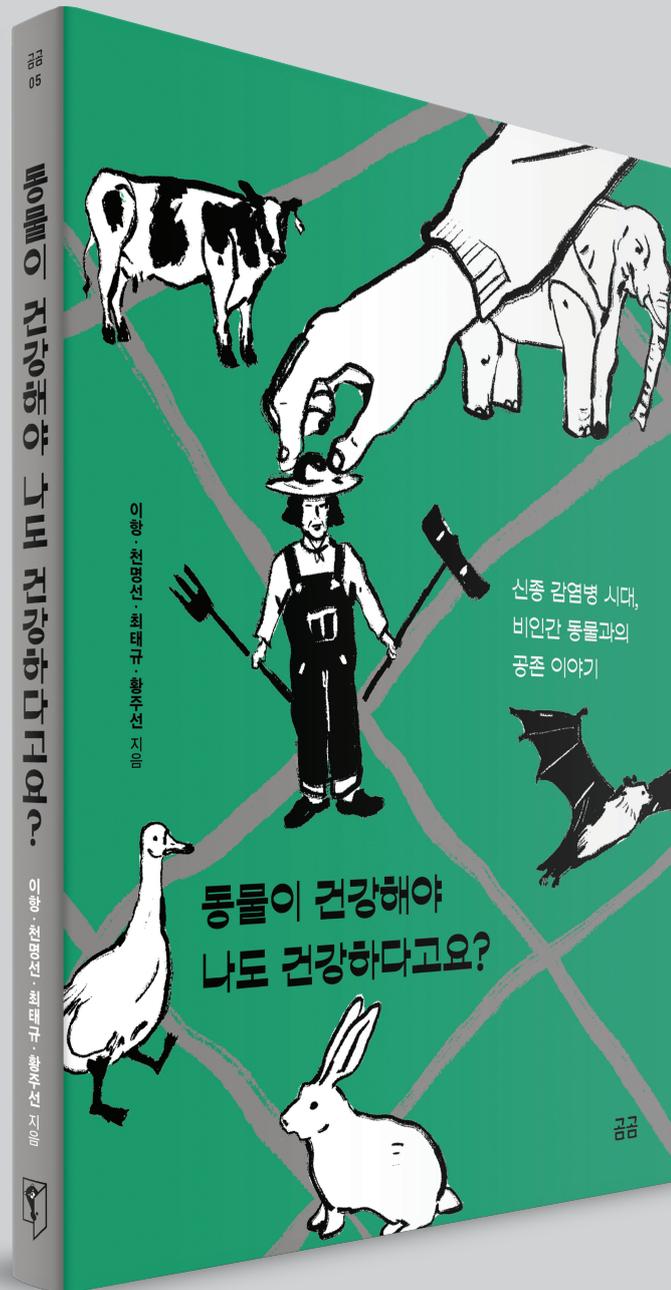


화흥고등학교 국어교사 이해연



분야

청소년 > 환경/생태
청소년 > 인문/사회

키워드

#인수공통감염병 #생물다양성 #동물복지 #동물실험 #동물권 #동물원 #반려동물 #수의사
#수의학

책 소개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코로나19로 대표되는 신종 전염병은 우리 생활방식의 많은 것을 바꾸었고, 앞으로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 예견된다. 뉴노멀(New Normal)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비인간 동물과 인간의 관계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생각거리가 되었다.

박쥐는 왜 자꾸 전염병을 옮기는지, 의학과 과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조류독감이나 돼지열병이 철마다 뉴스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공장식 축산이 나쁘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인간인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동물 복지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이야깃거리는 ‘동물 복지 축산’이 전부인지... 코로나 팬데믹 이후를 살아갈 세대에게는 인간과 이종으로서의 동물,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동물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하다고요?》는 환경부 산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교,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현장에서 연구하고 활동하는 수의사들이 들려주는 비인간 동물과의 공존 이야기다. 생물다양성과 인간의 삶, 신종 감염병의 원인, 인간과 반려동물의 관계, 동물 복지와 동물원의 뒷방, 동물실험의 3R 원칙과 동물 보호 운동의 쟁점 등 인간-동물 관계의 역사부터 이미 시작된 변화의 흐름까지 이야기하는 이 책은 나와 다른 존재와 공존하는 삶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전한다.

차례

1차시 여섯 번째 대멸종의 위협,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2차시 야생동물과의 거리, 양팔 벌려 좌우로 나란히

3차시 호모사피엔스도 개를 귀여워했습니다

4차시 사람 복지요? 모퉁이를 돌아 동물 복지와 같은 방향입니다

5차시 17호가 세상을 떠났고,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6차시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는 곳일까요?

7차시 동물 보호 운동, 한 걸음 더 세상 속으로

8차시 경계를 허물고 존중을 세우다

들어가며

1.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야생동물(곤충 포함)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볼까요?

2. 내가 찾은 야생동물을 모두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우리 모둠은 몇 종류의 야생동물을 찾았는지 발표해 봅시다.

내용 확인하기

1. ‘건강한 생태계’, ‘지속가능한 생태계’는 균형 잡힌 생태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생태계가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찾아 적어 봅시다.(16쪽)

2. ‘생물 다양성’이란 무엇일까요?(21쪽)

3.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섯 가지 요인을 찾아 적어 봅시다.(26쪽)

4. 인간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동물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간이 야생동물을 잡는 여러 형태 중 가장 대규모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빈칸에 적어 봅시다.

(1)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해양에서 거대한 배들이 말 그대로 바다를 ‘긁어’모으고 있습니다. 해수면에 그물을 치거나 촘촘한 그물을 바다 밑바닥으로 끌고 다니면서 그 거대한 그물에 걸린 크고 작은 동물들을 모조리 잡아 올려 죽이죠. 잡아 올리기 전에 이미 죽어 있는 경우도 다반사고요. 일단 이렇게 잡는 물고기 수 자체가 엄청난 것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죽어 간 더 많은 동물들은 상품으로 팔 수 없어서 다시 바다로 버려집니다.(31쪽)

(1):

(2) 야생 동물은 살아서 거래되기도 하고, 죽어서 그 신체의 일부만 거래되기도 해요. 반려동물로 인기 있는 앵무새 종 대다수는 이미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고, 군대 수준의 규모와 무기를 갖춘 밀렵꾼들이 상아를 얻으려고 코끼리 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은 야생동물들은 상품으로 둔갑해 불법적인 경로로 유통되거나 인터넷에서 암암리에 거래되곤 합니다.(32쪽)

(2):

생각 넓히기

1. 하버드 대학교의 T.H 찬 스쿨사무엘 마이어 교수는 2015년 “꿀벌이 사라진다면 전 세계에서 한 해 142만 명 이상이 사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꿀벌이 사라지는 것이 왜 인명 피해와 연결되는지 정리하여 적어 봅시다.

올봄도 침묵이었다. 철원에서 만난 양봉농가는 작황을 묻는 질문에 침묵으로 답했다. “올해도 날씨가 참 ….” 오랜 침묵 끝에 돌아온 대답은 야속한 날씨에 대한 원망이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최근 올해 아카시아꿀 생산량이 평년의 45%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철원 채밀 현장에서 목격한 상황과 다르지 않았다. 농과원이 분석한 작황 부진 이유는 ‘이상기후’였다. 아카시아의 개화 시기에 잦은 비바람과 낮은 기온이 생산력을 저하시켰다. 채밀 시기에도 비가 많이 내려 꿀벌의 활동이 부진했고 채밀 기간도 단축됐다. 실제로 지난 5월은 역사상 비온 날이 가장 많은 달이었다.

양봉 수난시대는 연례화되고 있다. 기록적인 흉년이었던 2018년과 지난해에도 이상 저온의 직격탄을 맞아 꿀 생산량이 급감했다. 더 큰 문제는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기후로 아카시아꽃에 먹을 꿀이 없다 보니 굶주린 꿀벌이 벌통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벌통에 들어 있는 꿀벌 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게 농가들의 분석이다. 30년간 꿀벌들과 동고동락한 농가들의 눈을 속이진 못한다.

꿀벌들이 완전히 침묵하는 봄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파급효과는 무시무시하다. 대표적인 화분 매개 곤충인 꿀벌이 사라질 경우 전 세계 과일의 22.9%, 채소의 16.3%, 견과류의 22.9%가 줄어들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재배작물이 감소하면 가축의 사료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식량 가격도 급등해 식량 위기가 야기될 수 있다. 꿀벌로 인한 나비효과가 엄청난 셈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도 최근 꿀벌이 멸종위기에 놓여 있고 외래 병해충이나 질병의 여파로 영영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꿀 생산량 급감을 자연재해로 인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양봉산업의 붕괴를 막으려면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출처: <꿀벌이 완전히 침묵하는 봄이 오면>, 《농민신문》, 2021.07.16.

활동하기

1. 다음 보도 내용을 보고 서식지 파괴를 비판하는 관점에서 환경부 관계자에게 ‘풍력 발전소 건립 중단’을 요구하는 편지를 써 봅시다.

앵커: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강원도 삼척 육백산 자락에서 멸종위기종 산양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환경부 협의를 거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산양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돼 부실 조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MW 풍력발전기 10기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강원도 삼척시 육백산 자락,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산양이 가파른 산비탈에서 어슬렁거립니다. 배변 활동으로 영역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취재진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 풍력발전단지 부지 인근 두 곳에 설치한 무인 카메라에 포착된 겁니다. 일주일 사이 각각 다른 개체 3마리가 촬영됐습니다. 이번에 산양이 촬영된 곳 중 한 곳입니다. 풍력발전기 설치 예정 진입로와 거리가 불과 10미터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협의를 거친 민간 발전사업자 측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산양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취재진 카메라에는 이를 만에 찍혔는데, 무인 카메라 10대를 설치해 1년 동안 벌인 조사에서 한 번도 관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욱이 산양이 버젓이 사는데도 고정 서식지가 없다는 의견까지 덧붙였습니다. 국유림을 개발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범준 야생동물연합 사무국장: 하나는 능력이 안 돼서 못 했을 수도 있고 하나는 업체에서 의도적으로

뺏을 수도 있고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환경부 관계자: 환경영향평가에서 걸러졌어야 되는데, 잘 안됐다고 봐야죠. 결과적으로 보면….

기자: 사업자 측은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생태환경조사를 벌였지만, 산양 서식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적인 조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출처: <'멸종 위기' 산양 서식지에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 《YTN 뉴스》, 2021.08.02.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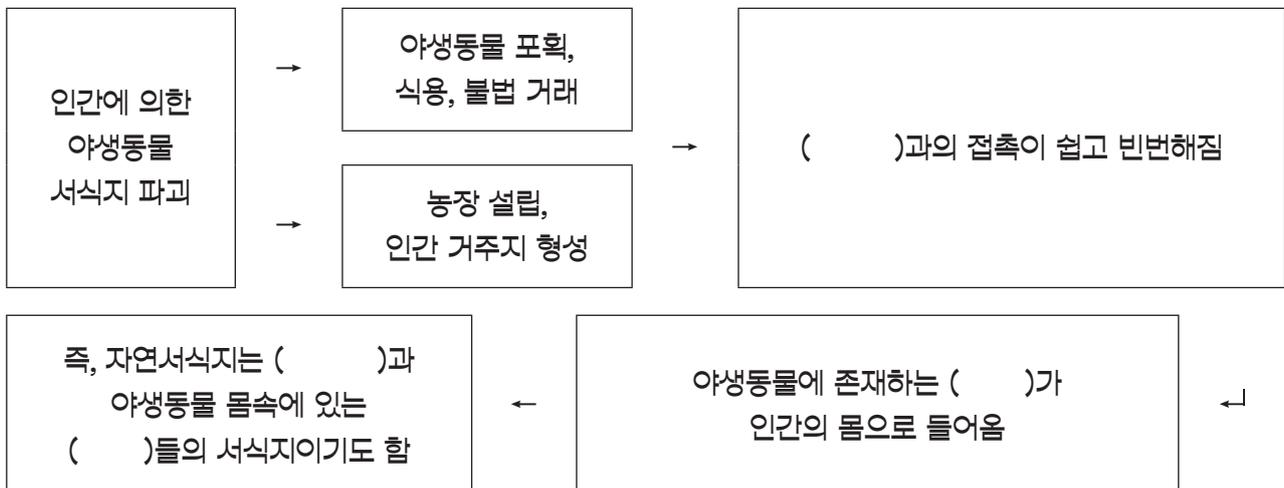
1. ‘체험 동물원’에 갔던 경험이 있다면 발표해 봅시다. 어떤 동물을 만났는지, 그 경험에서 느낀 점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2. 가축(개, 고양이, 닭 등)이 아닌 야생동물을 키워 본 경험이 있다면 적어 봅시다. 어떤 동물을 얼마 동안 키웠는지 친구들에게 발표해 봅시다.

내용 확인하기

1. ‘인수 공통 감염병’이란 무엇인지 찾아 적고, 특히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신종 감염병들로 무엇이 있는지 적어 봅시다.(45쪽, 48쪽)

2. 현재 학계에서는 인간의 활동 중 두 가지 경로를 야생동물 유래 신종 감염병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이 건너오는 다리인 두 가지 요인은 무엇일까요?(54쪽)

3. 다음은 인간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할 경우 신종 감염병이 어떻게 인간에게 건너오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56쪽~58쪽을 참고하여 괄호 안에 적절한 말을 채워 봅시다.



4. 야생동물을 감금하고 사육하는 행위가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이유를 적어 봅시다.(59~60쪽)

생각 넓히기

1.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생각해 봅시다.

“호랑이, 하이에나, 사막여우, 긴팔원숭이, 비단구렁이, 보아염소, 이구아나, 앵무새 등 다양한 동물을 대도시가 아닌 가까운 곳에서 체험할 수 있어 너무 좋고 행복했습니다.”

선선한 초여름 날씨를 보였던 지난 23일 아이와 손을 잡고 주주동산으로 동물여행을 떠난 김모·이모 씨 부부는 숲속의 동물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경북에서 가장 규모가 큰 숲속의 동물 마을 주주동산은 새소리와 물소리가 어우러진 1만5천867㎡ 규모에 64곳의 전시장과 체험장을 갖춘 체험형 동물원이다.

이곳에는 책이나 TV에서 보던 파충류 44종 170마리, 포유류와 설치류 21종 115마리, 조류 19종 160마리, 어류 34종 380마리, 영장류 17종 18마리와 국제멸종동물 및 천연기념물인 파충류 23마리, 영장류 38마리, 조류 13마리 등 어류를 제외한 180종 270마리의 동물을 보유하고 있다. 매월 먹이값만 1천만 원 이상 소요될 정도로 가장 규모가 크면서 경북에서는 유일한 야외 종합 동물원이다.

주주동산 64곳의 체험·전시장은 맹수를 제외한 대부분 동물을 직접 체험하거나 교감할 수 있도록 사육사 6명의 친절한 설명을 곁들여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인기가 많다. 주주동산은 △사육사와 함께하는 동물 해설 프로그램 △유아, 초·중생 교과과정과 연계한 단체 동물 체험학습 프로그램 △5~10세 어린이를 위한 놀이체험 개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 환경부가 생물 다양성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주주동산은 ‘아이에게는 추억을, 동물에게는 사랑을’ 목표로 동물의 존엄성과 사랑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동물원이다. 구미시민은 입장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동물의 휴식 시간인 월요일엔 휴장한다. 이용만 대표는 1998년 아들이 취미로 키우던 이구아나와 맺은 인연으로 동물을 사육하다 종합동물원으로 키웠다. 이 대표는 “사람과 동물이 상생하고 공존하는 행복한 동물원으로 가꾸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긴팔 원숭이, 사막 여우 만나러 가요!”>, 《영남일보》, 2021.05.26.

(1) 이 동물원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모듈별로 두 가지씩 찾아 적어 봅시다.

(2) 체험형 동물원이 밀줄 친 말과 같이 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토론해 봅시다.

활동하기

1. 모둠별로 인터넷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서식지 파괴에 대한 기사를 찾아 아래 내용이 들어가도록 발표 자료를 만들어 봅시다.

- (1) 어떤 생물의 서식지 파괴에 관한 것인가?
- (2) 어떤 이유로 서식지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3) 위의 서식지가 파괴되면 어떤 영향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는가?

〈예시1〉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시 갯대중’의 하나인 흰발농게가 집단으로 서식하는 영종도의 갯벌에 준설토 배송관 설치해 서식지 파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배송관의 진동과 소음 등으로 흰발농게의 서식지 교란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배송관 위치를 옮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일 인천해수청과 IPA 등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인천항 제1항로 남측과 북측 구간의 항로 유지를 위한 준설토 832만㎥ 규모의 본격적인 준설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때 나온 준설토는 영종2지구에 있는 제2준설토투기장에 매립한다. 매립은 준설토를 바지선으로 옮겨 배송관을 통해 준설토투기장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배송관이 놓인 영종 갯벌은 멸종위기종이자 인천시가 보호해야 할 5종의 갯대중 중 하나인 흰발농게의 최대 서식지다. 영종2지구 갯벌 393만5천㎡ 중 9만5천여㎡에 이르는 면적에 200만 마리 넘게 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배송관이 영종갯벌 위에 놓여 있어 준설토 이송 작업 때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이 흰발농게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등 서식지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배송관의 진동과 소음이 사람에게 큰 자극이 아니지만, 흰발농게는 사람보다 낮은 500Hz 아래의 주파수 영역을 이용해 미세한 자극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흰발농게는 번식을 위해 땅을 두드려서 의사소통을 하고 짝짓기 등을 하는데, 이를 배송관이 방해할 수 있어 개체수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

김태원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교수는 “흰발농게는 시각과 땅의 진동을 활용해 의사소통을 하며 살아간다”며 “흰발농게가 배송관의 진동과 소음으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이는 곧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미세한 소음이라도 흰발농게 등 갯벌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서식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배송관을 설치하기 전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다”고 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처음 준설을 추진하면서 배송관이 흰발농게 서식지를 피하도록 계획했다”며 “하지만 지난해 흰발농게의 추가 서식지가 나오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뒤늦게 인천해수청은 배송관이 영종 갯벌 위를 지나지 않도록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상태다. 배송관은 갯벌이 아닌 인근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 구역인 호안의 상부 도로 옆으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인천해수청과 IPA는 곧 시공사 등과 논의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다행히 아직 준설 전이라 배송관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라며 “흰발농게 서식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배송관 이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출처: <인천 영종도 갯벌에 배송관… ‘인천 갯대중’ 흰발농게 서식지 파괴 우려>, 《경기일보》, 2021.08.01.

들어가며

1. 요즘 유행하는 '고양이 집사'라는 말에 담긴 의미를 이야기해 봅시다.
2. 반려동물을 키워 본 경험이 있다면 적어 봅시다. 어떤 동물을 얼마 동안 키웠으며, 어떤 점을 느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내용 확인하기

1.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개를 키우면서 역사적으로 어떤 유용함이 있었는지 찾아 적어 봅시다.(71쪽)

2. 다음의 사례들을 통해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적어 봅시다.(74쪽)

- 2017년 영국의 링컨대학교 연구팀은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해마다 20억 파운드(약 3조 1,048억 원) 이상의 보건 비용이 절약된다고 추정했다.
- 2018년 홍콩이공대학교의 간호학자들은 반려동물에게 애착이 높은 홍콩인들이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더 적게 느낀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 심리학자들은 반려동물이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이 자폐증이나 난독증 또는 행동 장애가 있는 어린이의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3. 반려동물과 함께하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추어야 할까요?(76쪽)

생각 넓히기

1. 다음 글을 읽고 함께 생각해 봅시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다. 동물을 사랑한다면 상업적 목적으로 강아지를 사육하며 위생 상태나 동물 복지 기준을 위반하는 이른바 ‘강아지 공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보도된 강아지 공장의 모습을 보면 철창 안에 강아지 수십 마리가 갇혀 있고 철창 주위에는 온갖 오물이 쌓여 있다. 이러한 강아지 공장이 2016년 기준 무려 3,000여 곳이나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동물 보호를 위해 더욱 구체적이고 강력한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판매자들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강아지를 생산하기 위해 매우 비윤리적인 방식을 택한다. 강아지를 정말 사랑한다면 동물보호소에서 데려오거나 가정집에서 자란 가정견을 택하는 편이 좋다. 동물의 소중한 생명 가치를 되새기며 물건을 찍어내듯 공장 식으로 번식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출처: <동물 복지 위협하는 ‘강아지 공장’ 우려>, 《동아일보》, 2021.06.16.

(1) 일명 ‘강아지 공장’이 성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2) ‘강아지 공장’이 생명 윤리 차원에서 비판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친구들과 토론해 봅시다.

활동하기

1.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만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읽고 이러한 유기견, 유기묘 사태를 막기 위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할지 친구들과 아래의 제안들을 참고하여 토론해 봅시다.

군산유기동물보호소. 차에서 막 내릴 때부터 가까운 철창까지 내달려 온 개들이 목청을 돋웠다. 현재 이곳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들은 대형견과 중형견 400여 마리와 소형견 250여 마리, 고양이 등을 포함해 총 약 750여 마리다. 지난해 이곳에 머물렀던 동물들은 모두 1,650마리로, 2019년 1,700여 마리보다 약간 감소했다. 견사가 부족해 중형·대형견들은 아직까지 외부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최근 바로 옆에 신축한 견사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보호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산유기동물보호소 김재현 이사장은 “이곳 환경이 좋다는 이야기가 퍼지고부터 한동안 전국에서 많은 이들이 찾아 동물들을 두고 가면서 입소 동물이 대폭 늘었다”며 “지난해 한 차례 15마리를 안락사시켰는데, 나름대로 합당한 기준을 세우고 많은 고민 끝에 시행한 일이지만 지금까지도 마음은 편치 않다”고 쓴 웃음을 지었다.

(...)

이 가운데서도 유기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보호소의 부담은 연일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달이면 평균적으로 약 140여 마리의 동물들이 이곳을 찾아오는데, 그중 15% 정도만이 주인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남은 동물들 가운데 품종이 있거나 작은 아이들은 비교적 새 가족을 찾는 일도 수월하지만, 대형견 등은 그마저도 쉽지 않다.

유기동물들의 구조와 보호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보호소 관계자들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동물 유기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과 관련,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다보니 그 효과를 실감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도 최소한 실제 처벌로 이어질 경우 유기 행위자들에게 보다 경각심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에는 뜸해졌지만 ‘입구 앞에 CCTV가 설치돼 있다’고 해도 케이지에, 상자에 아이들을 넣어 버리는 일이 잦았다”며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 이번에 개정된 법과 발맞춰 엄격히 벌금 등을 적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도 1순위이지만, 손쉬운 동물 입양이 수요자들에게 충분한 경각심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만큼 구매자 교육 등 외국과 같은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하는 것 역시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출처: <군산유기동물보호소, 유기견 한달 평균 140마리 입소... 주인품 고작 15%>, 《전라일보》, 2021.02.08.

(1) 반려동물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2)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3) 반려동물 구매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4) 동물보호법을 현행보다 더욱 강화하여 적용해야 한다.

(5) 반려동물을 사유재산이 아닌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인식 전환 홍보 활동을 해야 한다.

(기타) _____

들어가며

1.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노인, 혹은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를 짓는 것은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것은 아닌가요? 만약 수십억 원을 들여 유기동물보호소를 새로 짓는다는 뉴스를 접하면 찬성할지, 반대할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친구들에게 발표해 봅시다.

내용 확인하기

1. '동물복지'란 무엇인지 세계동물보건기구의 공식적인 정의를 찾아 적어 봅시다.(95쪽)

2. 전통적으로 동물복지의 뿌리가 되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아래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99쪽~100쪽)

'동물도 인간처럼 ()을 느낀다'는 사실은 전통적인 동물복지의 뿌리가 되었다. 대표적 공리주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은 1789년에 출판한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이라는 책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유할 수 있는가도 아니고 그들이 말할 수 있는가도 아니다. 그들이 ()을 느낄 수 있느냐이다'라고 말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는 동물도 ()받아 마땅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3. 동물 행동 연구는 동물복지에 주요한 도구로써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101쪽~103쪽을 읽으며 정리해 봅시다.

4. '집약 축산'은 다른 말로 '공장식 축산'이라고도 합니다. '집약 축산'의 의미를 고려하여 왜 '공장식 축산'이라고도 부르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107쪽)

생각 넓히기

1. 다음 기사를 읽고 함께 생각해 봅시다.

**가로·세로 50cm 틀에 산란계 4~6마리 감금
유럽 2012년부터 사용 금지... 국내는 95% 유지
“정부·기업·소비자 모두의 노력 필요”**

시민·사회단체들이 가로·세로 50cm의 철창에 4~6마리의 닭을 사육하는 이른바 ‘배터리 케이지(Battery Cage)’ 시스템을 개선을 지적하고 나섰다. 배터리 케이지는 좁은 면적에 여러 마리의 닭을 집어넣고 움직임과 사료 섭취량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는 공장식 사육 시스템이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 보호 단체들은 2일 세계 농장동물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잔인한 배터리 케이지 사육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선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산란계 한 마리에게 주어진 공간은 A4용지 3분의 2 크기에 불과하다”며 “축산농가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어지는 동물 학대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지에 갇힌 닭들은 날개를 펼치기는커녕 2년이 지나 산란율이 떨어지면 도축돼 식탁에 오른다. 자연 환경에서 닭의 수명이 7~13년인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살충제 계란 파동 역시 자연 상태라면 모래 목욕을 통해 몸속의 해충을 털어냈을 닭들을 케이지에 가둬둔 채 해충을 없애겠다고 살충제를 뿌려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배터리 케이지는 비인도적인 사육 방식으로 평가받아 외국에선 금지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에선 20여 년 전부터 배터리 케이지 문제를 공론화한 후 2012년부터 법적으로 산란계의 배터리 케이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케이지 사육의 적정 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하도록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9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전부다. 미국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배터리 케이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케이지 프리(Cage Free)’ 선언을 하고 있다. 국내에선 지난 9월 풀무원이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케이지 프리를 선언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동물 복지를 고려한 사육 시스템을 도입하면 가격 상승 등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며 “동물복지 문제를 사람도 함께 나눠야 할 공동 부담으로 인식하는 소비자들의 의식 변화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출처: <좁은 철창에 갇힌 닭들... “배터리 케이지 금지하라”>, 《이데일리》, 2018.10.02.

- 기사에서는 산란계의 복지를 위해서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업, 소비자’는 각각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안을 적어 봅시다.

산란계의 복지를 위한 각 분야의 역할

정부의 역할	
기업의 역할	
소비자의 역할	

활동하기

1. 다음은 루스 해리슨의 저서 《동물 기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밑줄 친 해리슨의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친구들에게 밑줄 친 문장의 의미를 설명하는 짧은 글을 써 봅시다.

1964년 영국에서 출간된 《동물 기계》는 인간의 먹거리를 위해 '식용 기계'가 된 동물들의 실상을 고발한 책이다. 그는 책에서 식용이 되기 위해 사육되는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최소한 생명체로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본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인간성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해리슨은 책에서 "끔찍한 방법을 동원해 동물을 멸시하는 인간은 결국 궁극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정상일 수 없다"고 역설하며 우리가 농장동물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들어가며

1. 최근 우리 사회에는 농장동물, 반려동물, 식용동물 등의 실태와 문제점을 비판하는 여론이 꾸준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험동물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내용 확인하기

1. 동물실험은 윤리적인 측면과 과학적인 측면 모두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각 측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적어 봅시다.(123~126쪽)

윤리적인 측면의 문제점	
과학적인 측면의 문제점	

2. 현대 동물실험의 3R 원칙을 적어 봅시다.(132쪽)

3. 실험실 동물의 '환경 풍부화'란 무엇인지 적어 봅시다.(132쪽)

4. 현재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대체 실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체 모델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대체 실험 연구의 사례를 두 가지 이상 적어 봅시다.(133쪽~134쪽)

생각 넓히기

1. 다음은 동물실험 문제를 알리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갈색 개 사건’과 관련된 주장입니다. 아래 표의 1~4번 중 동의하는 입장을 선택하고 나의 의견을 정리해 발표해 봅시다.

- 생체 해부 실험 반대 :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 생체 해부 실험 찬성 : 의학 발전을 위해선 동물실험이 꼭 필요하다.



갈색 개 동상(출처: 위키백과)

입장	나의 선택 (V표시)	이유
1. 동물실험은 금지되어야 한다		
2. 동물실험은 허용되어야 한다		
3. 동물실험을 허용하되, 까다롭게 제한되어야 한다		
4. 동물실험은 특별한 상황을 위해 남겨 두어야 한다		

활동하기

1. 다음은 실험견의 현실과 구조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동물실험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실험견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모둠별로 토의하여 발표해 봅시다.

(...) 비글이 실험견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장난치길 좋아하고 활발하지만 그만큼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유전적 결함이 없는 상태에서 실험해야 하는 시료로서의 역할을 위해 외모나 유전적 측면에서도 완벽한 품종인 '비글스탠다드'에 가깝다. 성별로는 암을성이 더 많은 수컷이 선호된다. 실험을 위해 본능적으로 물려고 하는 습성을 없애고, 주사바늘을 꽂는 연습도 한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실험견 상당수는 국내 실험견 생산업체가 많지 않아 미국 최대 동물실험 생산업체인 '마셜 바이오 리소스'의 중국 생산공장에서 수입되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오로지 인간의 이익을 위해 관리되며 평생을 실험실에서 사는 동물이 국내에만 연간 200만 마리에 달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실험실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한 채 죽음을 맞는다. 실험견만 봐도 지난 15년간 실험에 동원된 15만 마리의 개 가운데 21마리만이 구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동물실험지침에 실험동물의 반출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해 실험기관이 의학적으로 세상 밖으로 내보내도 된다고 판단하는 동물도 폐기 처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실험동물을 다 구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밖으로 나와도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동물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게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특히 최근 동물복지에 눈을 뜬 젊은 실험연구자들이 실험을 마친 동물에게 새 삶의 기회를 주고 싶어 하지만 이를 결정하는 상부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동물실험에 대한 고뇌와 스트레스를 느끼는 실험연구자로부터 실험동물 구조에 대한 문의가 오고 있다고 했다. 인간을 위해 이용된 생명을 위해서도, 실험연구자들의 마음을 구조하기 위해서라도 실험동물에게 실험실 밖으로 나올 기회를 주어야 한다.

출처: <실험견 구조는 사람 마음도 구조하는 것>, 《한국일보》, 2017.01.10.

- (1) 위 기사에서 실험견이 처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 (2) 실험견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들어가며

1. 여러분은 동물원에 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동물원의 동물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나요?

2. 동물원에 가지 말자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동물원의 어떤 점들을 불편해하는 걸까요? 친구들과 생각을 나눠 봅시다.

내용 확인하기

1. 다음 내용에 대해 O, X로 답해 봅시다.(140~144쪽)

- 동물원이 대중에게 개방되기 시작한 시기는 19세기로 그 전에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동물원'을 소유하고 야생동물을 즐길 수 있었다.()
- 역사상 최초의 동물원은 1752년 헝가리의 프란츠 1세가 세운 쇤브룬 동물원이다.()
-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원은 조선 시대에 일본이 창경궁을 허물고 세운 창경원이다.()
- 독일제국의 하겐베르크는 동물원에 동물과 함께 인간을 전시한 적도 있다.()

2.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동물원에 미친 영향을 적어 봅시다.(152쪽)

3. 동물원은 두 가지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관점을 적어 봅시다.(157쪽)

생각 넓히기

1. 다음은 돌고래 방류와 관련된 동물보호단체와 사업체 간의 의견 차이를 보여 주는 보도 내용입니다. 방류가 어렵다는 사업체 측에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이유를 들어 설득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과 조목조목 이유를 밝혀 적어 봅시다.

앵커: 국내에 들어온 돌고래와 벨루가 가운데 남은 것은 모두 24마리입니다. 지금도 전국 7곳의 수족관에서 전시와 공연, 또 돌고래 타기 체험에 동원되고 있는데, 그럼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 24마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바다로 돌아갈 수 있는지 김관진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기자: 경상남도 거제 씨월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돌고래 6마리와 벨루가 3마리가 사육 중인데, 공연과 체험 상품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2014년 개관 뒤 11마리나 숨졌지만, 이른바 ‘VIP 체험’은 여전히 합니다.

거제 씨월드 직원: 먹이 주고 만지고 뽀뽀하고 벨루가들 설명도 듣고 같이 수영도 하실 수 있습니다. (취재팀: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상관없어요?) 네, 타실 수 있습니다.

기자: 돌고래 태교와 수영 등 수십만 원짜리 체험 상품을 파는 제주 마린파크. 지난 1년 동안 돌고래 3마리가 잇따라 숨졌지만, 남은 돌고래 1마리가 하루 관광객 수십 명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새 법안이 관람 목적의 돌고래 반입은 금지했지만, 이미 들어온 24마리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돼도 돌고래 방류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A 수족관: (취재팀: 돌고래 방류 계획을 여쭙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취재에 응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만 끝겠습니다.

기자: 취재팀이 수족관 7곳 모두에 방류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더니 아쿠아리움 1곳만 방류할 것이라고 답해왔습니다. 나머지 돌고래들은 공연과 체험 활동이 금지돼도 수족관에 갇혀 계속 전시될 가능성이 큰 상황. 동물보호단체 측은 신규 사육과 체험 금지는 환영한다면서 전시행위 금지도 요구했습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몸을 숨길 곳도 없이 관람객들한테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금지행위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사실 들어가야 합니다.)

기자: 생존권과 직결된다며 방류에 소극적인 수족관들,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남은 돌고래들의 수족관 조기 폐사는 예정된 수순입니다.

조약골 핏핑크돌고래 대표: 10년 이상 돈벌이에 동원된 개체가 이제는 좀 그만해도 되잖아요. 은퇴해야 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죽는 날까지 콘크리트 수조에서….

출처: <남은 돌고래 24마리 운명은?... “당장 방류 어렵다”>, 《SBS 뉴스》, 2021.07.12.

활동하기

1. 우리는 동물원을 탈출했다가 사살된 동물에 관한 기사를 종종 접합니다. 아래와 같은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사람들은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가요? 친구들과 지금의 ‘(감옥형)동물원’이 아닌 다른 형태의 생태 교육을 상상하여 발표해 봅시다.

지난해 5월 19일 대전 오월드에서 무게 60kg의 2010년생 암컷 퓨마 ‘뽕롱이’가 우리를 탈출했다가 동물원 내 건초보관소 인근에서 사살됐다. 사육사의 부주의로 문이 열리자, 본능적으로 우리에서 나와 자유의 몸이 된 4시간 30분 동안에도 동물원 밖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뽕롱이를 기다린 건 결국 죽음뿐이었다. 그리고 당시 소식을 접한 많은 이들은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분노했다. 이어 인간의 욕심에 자연이 아닌 동물원에서 평생을 지내다 인간의 실수로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는 동물이 더 나와서는 안 된다며 동물원 폐지 요구가 이어졌다. 동물원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만 약 60여 개가 접수됐으며, 이중 최대 서명 인원은 6만 4,000여 명이나 됐다.

출처: <보고 싶은 동물 클릭하면 눈앞에... 5G 기술이 만든 ‘AR 동물원’>, 《한국일보》, 2019.09.28.

들어가며

1. '동물 보호'라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나요? 어떤 동물과 보호 활동이 생각났는지 발표해 봅시다.

2. 여러분은 동물 보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나요? 그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 동물 보호 운동을 하고 있을까요?

내용 확인하기

1. 세상에는 동물 보호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법이 특정 동물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불쾌하고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동물 보호법은 인간 약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예를 찾아 적어 봅시다.(162쪽~163쪽)

2. 1842년에 설립된 세계 최초의 동물 보호 운동 단체는 무엇인가요?(166쪽)

3. 동물 보호 운동가가 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175쪽)

생각 넓히기

1. 다음은 동물 복지와 동물 보호의 한 형태인 생추어리(안식처, 쉼터)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읽고 느낀 점을 적어 봅시다.

저는 반려동물을 돌보는 수의사이지만 ‘곰보곰자리’라는 단체에서도 활동하는 활동가입니다. 2년 전 우연한 기회로 사육곰에 대해 알게 되었고 ‘곰보곰자리 프로젝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육곰이 어떤 이유로 키워지는 곰인지는 아시나요? 웅담용으로 사육, 도축되는 곰을 사육곰이라고 합니다. 1980년대 초 정부는 농가 수익 증대를 위해 웅담산업을 장려했고, 해외에서 곰들을 수입해 와 사육하도록 권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 웅담의 수출은 금지되었고, 현대의학의 발달로 웅담이 큰 효용이 없다는 게 널리 알려지면서 국내 수요도 줄어들었죠.

(...) 2016년 정부는 사육곰들의 증식을 금지했고, 중성화 수술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곰들의 고통을 줄일 수는 없었죠. 수십 년간 철장 밖을 나온 적이 없는 곰들은 죽지도 못하고 아직 철장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시국에 인터넷으로 사람을 모아 곰을 불법 도살해서 웅담을 채취해 먹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취총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곰의 혀를 잘라 숨이 멎을 때까지 방혈하는 방식으로 죽였습니다. 인간으로서 극악하고 잔인한 도살이라 입에 올리기도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섭취한 웅담이나 살코기가 얼마나 건강에 도움이 되려나요. 더욱 화가 나는 건 불법으로 도축되거나 매매되어도 적절한 처벌조치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국가에서 곰들을 몰수해도 데려다 둘 곳이 없으니까요.

이달 초 용인에 있는 사육농장을 탈출한 곰이 사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쩌다 곰이 탈출하는 사건이 있으면 잠시 관심을 둘 뿐,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398마리의 사육곰들은 감금당한 채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탈출한 곰이 산속에서 오래오래 잘 살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지리산에 방사하면 어 떠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육곰은 온전한 야생동물이 아닙니다. 모두 농장에서 태어난 곰들이고 사람의 필요에 의해 데려다 키웠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존합니다. 스스로 먹이를 구하거나 야생에 바로 적응할 방법을 모릅니다. 결국 사육곰들의 운명은 사람에게 달려 있지요.

이런 현실에서 ‘곰보곰자리 프로젝트’는 사육곰을 구조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생추어리(안식처)를 만들고자 결성된 프로젝트 단체입니다. (...) 얼마 전부터 ‘곰보곰자리’ 활동가들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곰 사육을 포기한 농장의 15마리의 사육곰을 구조했습니다. 순수 목적의 곰 생추어리를 건립하기 위해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지원을 받고 또 많은 이들의 힘을 모아 국내 최초의 곰 생추어리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생명을 연장하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고유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생추어리의 목적입니다.

출처: 박정윤, 사육곰에게 보금자리를 만들어 줄 예정입니다, 《한국일보》, 2021.07.21.

활동하기

1. 모둠별로 보호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동물(유기동물, 농장동물, 야생동물, 실험실 동물, 불법개인사육동물 등)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정리하여 발표해 봅시다.

1. 선정 동물	
2. 선정 이유	
3. 현재 국내 보호 및 구조 활동 상황	
4. 앞으로의 과제 및 우리가 해야 할 일	

들어가며

1. 이 장의 제목과 관련된 “경계를 넘어 존중으로”라는 말은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한 말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내용 확인하기

1. 인간과 동물 사이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동물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인식이 중요합니다. 각각은 동물을 인간과 같은 어떤 존재로 보기 위한 예시인지 적어 봅시다.

공리주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은 동물이 생각할 수 없거나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동물을 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배려해야 할 윤리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강력하고 단순한 가정은 이후 동물 보호 운동을 비롯하여 동물 복지 정책과 제도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187쪽)

▶ 동물도 ()을 느낄 수 있는 존재다.

미국 브롱크스동물원에 있는 아시아코끼리들은 자기 인식의 지표로 불리는 ‘거울-자기 인지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2012년 한국의 에버랜드에서 아시아코끼리 ‘코식이’는 코와 입을 활용해 한국어 단어 7개를 따라 해서 학술 저널에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2011년 케임브리지대학교의 코끼리 연구 팀이 태국의 코끼리 보호센터에서 수행한 실험에서는 코끼리가 두 마리의 협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먹이를 획득하는 데 성공해 코끼리의 지적 능력을 증명했다고 해요.(190쪽)

▶ 동물도 ()을 가진 존재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를 비롯해 조류인플루엔자(조류독감), 같은 신종 감염병은 인간과 동물 모두를 공격하는 인수 공통 감염병입니다. (...) 유럽과 미국 홍콩에서는 코로나19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키우는 개, 고양이가 감염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요.(192~193쪽)

▶ 동물은 인간과 같은 ()에 걸릴 수 있는 존재다.

생각 넓히기

1. '금붕어 택배 판매'는 동물 보호법 위반에 해당될까요? 2021년 개정된 동물 보호법을 찾아보고 위의 물음에 답해 봅시다.

2. 만약 동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좋아하지 않는 주민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동물 보호 차원에서 먹이를 계속 줘도 될까요? 아니면 공동체 유지 차원에서 그만두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발표해 봅시다.

활동하기

1. 지금까지 읽은 총 8편의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내용을 선정하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1. 가장 인상적인 내용	
2. 이유	
3. 새로 알게 된 사실	
4. 더 알고 싶은 것	